



2020년 5월 31일(제984호) **성령 강림 대축일(청소년 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성령을 받아라.”

오늘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에 겁을 먹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뒤에 골방에 숨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고기나 잡으러 갔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위업을 서로 다른 나라 언어로 크게 외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자 제자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변모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겪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에 제자들은 성령께서 오실 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끄심 안에서 준비되었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적과 같은 일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열두제자에게만 일어났던 일은 아닙니다. 선물로 주어진 성령께서는 우리의 선조들에게도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평범한 삶을 사시던 분들이었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분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농부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실천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선비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신부님을 모셔왔습니다. 어린아이

가 관아로 나아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증언하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모든 변모의 한가운데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고리타분한 일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재미없고 흥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세례를 통해 시작된 변모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서서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결단과 실천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생활 중에 예수님을 먼저 떠올리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성령께서는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생각해보고 그 선물을 사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면 보일수록 성령의 선물과 함께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심을, 그분의 얼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도 제자들처럼, 순교자들처럼, 우리의 신앙 선조들처럼 새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윤상완(시른) 신부  
한빛(32시드)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사도 2,1-11

**회답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 2 독 시**

1코린 12,3ㄷ-7.12-1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요한 20,19-23

**영성제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주문모 야고보



성인명: 주문모 야고보 (周文謨 James)

신분: 신부, 순교자

활동연도: 1752-1801년

1752년 중국 강남의 소주부 곤산현에서 태어난 주문모(周文謨) 야고보 신부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모 슬하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다가 스스로 천주교 신앙을 진리라고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후 북경교구 신학교에 입학하여 제1회 졸업생으로 사제품을 받았다.

당시 북경의 구베아 주교는 조선에 성직자를 파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에 그는 신앙심이 깊은 데다가 조선 사람과 닮은 주 야고보 신부를 조선 선교사로 임명하고, 성무 집행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였다.

주 야고보 신부는 1794년 2월에 북경을 떠나 약속된 장소로 가서 조선 교회의 밀사인 지황 사바와 박 요한을 만났다. 그런 다음 조선 사람으로 변장하고 그해 12월 24일(음력 12월 3일) 밤에 조선에 입국하였다. 한양에 도착한 주 야고보 신부는 계동(현, 서울 종로구 계동 지역)에 있는 최인길 마티아의 집에 머물면서 한글을 배웠으며, 1795년 예수 부활 대축일에는 신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미사를 봉헌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그의 입국 사실이 탄로 나자, 그는 부랴부랴 여회장 강완숙 골롬바의 집으로 피신해야만 하였다. 반면에 주 야고보 신부의 입국을 도운 밀사 윤유일 바오로와 지황 사바, 그리고 집주인 최인길 마티아 등은 그날로 체포되어 포도청에서 혹독한 형벌을 받다가 모두 순교하고 말았다.

이때부터 주 야고보 신부는 아주 비밀리에, 그러나 열심히 성무를 집행하였다.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성사를 베풀었으며, 신자들의 교리 공부와 전교 활동을 위해 명도회를 조직하였고, 교리서도 집필하였다. 이처럼 그가 활동한 지 6년이 지나면서 조선 교회의 신자수는 모두 1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1801년의 신유박해가 모든 것을 앗아가고 말았다.

박해가 일어나자 연이어 신자들이 체포되었고, 주 야고보 신부의 행방을 자백하도록 강요를 받거나 죽임을 당하였다. 이때 주 야고보 신부는 자기 때문에 신자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귀국을 결심하였다가, '나의 양 떼와 운명을 같이하여 순교함으로써, 모든 불행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수를 결심하였다.

1801년 4월 24일(음력 3월 12일), 주 야고보 신부는 스스로 박해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내 재판이 열리고 문초가 시작되었으나, 그는 형벌 가운데서도 침착한 자세를 잃지 않고, 모든 질문에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답하여 박해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말을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 야고보 신부에게 군 문효수형(軍門梟首形, 죄인의 목을 베어 군문에 매어 달던 형벌)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신부는 형장으로 정해진 한강 근처의 새남터로 끌려갔다. 그곳에 도착한 뒤, 주 야고보 신부는 자신의 사형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머리를 숙여 칼날을 받으니 그때가 1801년 5월 31일(음력 4월 19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49세였다.

### 복 음 록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바람이 그들을 덮었다.

태초에  
말씀이 세상을 덮듯.

성령의 바람이  
그들을 덮었다.

성모님을  
말씀이 덮듯.

새로운 세상의  
창조를 위해.



상화이야기

천상모후의 관을 받으시는 성모님



디에고 벨라즈케즈, 1641~1644년경 제작  
캔버스 위 유화, 176×124cm / 프리도 미술관, 스페인

벨라즈케즈는 보라색과 베니스산 카민(적색), 푸른색, 이 세 가지 색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그림을 한데 묶어 주는 역할을 동시에 한다.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성자와 성부 성령, 성부께서 성모님께 천상모후의 관을 씌워주시는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예수님은 한 손에 왕홀을, 하느님은 한 손에 전 지구/우주를 상징하는 구를 들고 계신다. 비둘기로 표현된 성령이 중앙에서 밝은 빛을 비추고 계시며, 중앙 하단에 앉아 계신 성모님은 겸손한 자세로 이를 받고 계신다.

상단에 갈라진 구름과 하단 푸티들의 모습 또한 인상적이며, 전체적인 구도가 인간의 심장(하트)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된다. 마치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뛰는 가슴을 보여주듯 말이다.



김은혜(엘리사벳)

세부도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들 위한 미사 - 성령 강림 대축일: 반말 윤성원 신부

◆ 교구장 통정

-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때·곳: 6월 1일(월) 15:00,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군중의 시간’ 인니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사후를 따르라”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